

“겨울밤의 낭만을”...함평 겨울빛축제 팡파르

내년 1월11일까지 엑스포공원 등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특별전
전시·체험 시설 오후 9시 연장 운영

함평군이 오색찬란한 빛으로 겨울밤을 수놓으며 사계절 축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군민과 관광객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2025 함평 겨울빛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내년 1월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8만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겨울 대표 축제로 가능성을 입증한 데 힘입어, 올해는 빛과 예술을 결합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돌아왔다.

올해 축제의 백미는 단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특별전 ‘빛으로 피어난 겨울, 함평의 인사’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전시는 빛을 활용해 감성과 예술미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5 함평 겨울빛축제’ 개막식에서 이이남의 함평군수(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소원등을 날리고 있다.

〈함평군 제공〉

또한 축제 공간을 엑스포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함평읍 시가지 곳곳으로 확장해, 방문객들이 함평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곳곳에는 빛의 회전목마, 천사 조형물 등

다채로운 조형물이 설치돼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참여형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은 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참여형

이벤트 ‘골든 황박이를 잡아라!’를 진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4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는 축제장 내·외부 지정 장소 9곳(엑스포공원 5곳, 읍 시가지 4곳) 중 읍 시가지 1곳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인증 사진을 찍어 인

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재단은 폐막식인 1월11일 유튜브 생중계 추첨을 통해 1등에게 함평의 상징인 황금박쥐를 본뜬 순금 한 돈 ‘골든 황박이 뱃지’를 증정하며, 2등에게는 함평 한우 선물세트, 3등에게는 굿즈 꾸러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타복 입기, 트리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잔디광장에는 ‘빛의 미로정원’, ‘가족 불명존’, ‘공유 화로존’ 등이 마련돼 야간 체험의 묘미를 더한다.

이에 발맞춰 엑스포공원 내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추억공작소·황금박쥐 전시관 ▲나비 곤충생태관 ▲군립미술관 ▲VR 체험장 등 주요 전시·체험 시설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임시안내소 운영 및 순찰 인력을 가동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이남의 함평군수는 “올해 겨울빛축제는 미디어아트와 포토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그램까지 어우러진 종합 야간 축제”라며 “연말연시 따뜻한 빛의 향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한국전기공사協 전남도회, 사회공헌 봉사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목포 유달·만호동에서 ‘2025년도 전기공사 기업인 사회공헌 실천의 날’을 맞아 나눔·봉사를 실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광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해 김원이(더불어민주당·목포)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영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장, 황봉화 목포시 경영자협의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 협회 산하 ‘전기사랑봉사단’은 유달동과 만호동내 취약계층 25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된 LED 전등과 스위치를 교체하고 낡은 전선

을 정비하는 등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협회는 쌀과 라면 등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응원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목포 곳곳에 아직도 도울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데 전기공사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재능기부를 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광길 회장은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준 회원들의 정성이 이웃들에게 닿길 바라며, 나누고 봉사하는 전기공사 업계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방문해 센터를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완도군 제공〉

완도군,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팔 걷었다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 3박4일 팸투어

해양치유·관광상품 개발 등 협력 모색

완도군이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해양치유 관광 세일즈에 나서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 10명이 3박4일간 완도를 방문해 우호 교류와 해양치유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 관광, 무역 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은 완도의 청정 자연과 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팸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완도타워와 이순신 기념관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전북·해조류 가공 시설을 시찰

했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전복 따기, 전복 김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표단은 완도의 우수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중국 내 급증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와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향후 ▲치유 관광 상품 개발 ▲문화 관광단 교류 ▲공동 마케팅 ▲수산물 식품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 관계자는 “완도는 천혜의 해양 환경과 훌륭한 관광 인프라를 갖춰 치유 관광의 최적지”라며 “기업 및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하고 1석4조 누리세요”

한 달간 답례품 증량·경품 증정

2천명에 고구마 등 특산품 제공

영암군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통 큰 혜택을 돌려주는 ‘1석4조’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12월 달간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 ‘웰로’등을 통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혜택에 더해 답례품 증량과 경품 추첨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자들은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기본 혜택(1석 2조)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영암군이 준비한 ‘답(증량)’과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1석4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선 ‘답례품 증량 이벤트’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해 ▲한우(꽃등심·불고기) ▲돼지고기(삼겹살·오겹살) 등 축산물부터 ▲쌀·고구마·배 등 농산물 ▲수제 요구르트·무화과·편·떡국 세트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기존보다 증량해 제공한다.

특히 한우 국거리, 사골곰탕, 훈제오리 등 가정 내 수요가 높은 실속형 상품의 증량 폭을 크

게 늘려 기부자들의 효응이 예상된다.

이밖에 12월 기부자 중 2천명을 추첨해 내년 1월 ▲김의존 햇꽃고구마 3kg ▲고구마말랭이 60g 5개 ▲대봉감말랭이 500g ▲수제 요구르트 500ml 2·4개 등 지역 특산품을 감사 선물로 발송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더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영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유용미생물 자동 분주 시스템’ 도입

20㏓ 대용량 다화용 용기 사용

농가 편의·탄소 저감 등 효과

해남군이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를 대폭 개선해 농가 편의 증진과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유용미생물 자동 분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2㏓ 단위의 개별 비닐 포장 방식 대신, 농가가 가져온 20㏓ 대용량 다화용 용기에 배양된 미생물을 자동으로 담아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대용량을 한 번에 받아갈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고, 군은 일회용 비닐 포

장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으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촉진은 물론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및 사료 효율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선충 방제 미생물과 돌발 해충 대비용 B.T균, 작물 병해 예방에 효과적인 GHI-13 등 기능성 미생물도 추가로 생산·공급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용 미생물 수령을 희망하는 농가는 깨끗한 다화용 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축산물 미생물은 기존 포장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규 신청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이나 가축사육두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유용미생물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미생물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 자재”라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미생물을 추가로 발굴·보급하고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군,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국무총리상’

에너지 사업 기간 단축...규제 혁신 호평

신안군은 “최근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 지방소멸 대응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140건의 사례 중 치열한 1·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건과 경합 끝에 신안군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김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군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지역 주민 등과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3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사업 기간을 3년이나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발로 뛴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직 사회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